

일본의 신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결혼

오노고로섬에 정착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남매는 서로의 신체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자손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세운 성스러운 기둥 주변을 서로가 마주칠 때까지 반대 방향으로 돌기로 약속하고, 마주친 순간 여동생인 이자나미가 먼저 말을 걸어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두 명 모두 괴이한 형태에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하늘의 신에게 조언을 얻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여동생인 이자나미가 먼저 말을 걸었기 때문에 괴이한 형태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먼저 말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이 8 세기 당시 신화를 기록했던 편찬자가 중국의 철학 중 특히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지배 계급들 사이에서 유교가 정착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자나미와 이자나기의 이야기에서처럼 여성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고는 신화가 기록될 당시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자나미의 사산에 관한 부분은 고대 사회에서 조산과 영아 사망률이 높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